

‘돌풍’ 류현진, 신시내티전 6승 도전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20일(한국시간) 오전 2시10분 미국 오파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올해 5승 1패 평균자책점 1.72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지난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원봉승을 거둔 류현진은 13일 위성 텐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8이닝 1피안타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최근 24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구종과 밀기 힘든 제구력을 바탕으로 매번 호투하고 있다.

다저스는 신시내티 원정 3연전에서 리치 헐(18일), 워커 블라(19일)에 이어 20일 류현진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신시내티는 15일 현재 18승 24패

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원정경기 성적이 홈경기 성적에 비해 나쁜 류현진이지만, 이번 대결

은 할 만하다. 신시내티에는 3할 타자가 한명도 없다. 게다가 신시내티는 팀 타율이 0.214로 메이저리그 전체 폴찌인 팀이다.

그러나 중심타선의 일발장타는 경계해야 한다. 우제니오 수아레스는 올 시즌 12개의 홈런을 터뜨렸고 데릭 디트리치와 제시 워커는 각각 10, 9홈런을 날렸다. 과거 디저스에서 한솥밥을 먹은 애시엘 푸이 그도 올해 7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류현진은 신시내티전에서 통산 6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4.46을 기록했다. 올해 원정경기(3경기) 성적은 무승 1패 평균자책점 2.93이다.

내년 KBO리그 3월28일 개막한다

도쿄올림픽 기간엔 중단

2020년 KBO리그는 토요일인 3월 28일 막을 올리고, 도쿄올림픽 기간 중엔 중단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2019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0년 경기일정 편성 원칙을 확정했다.

3월 28일 개막전은 2018년 정규리그 순위 상위 5개 팀인 SK 와이번스·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KIA 타이거즈 흥 구장에서 치러진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기간

에 KBO리그는 중단한다. 내년 올스타전은 7월 25일에 개최된다.

시범경기는 3월 14일에 시작해 24일까지 팀 당 10경기씩 총 50경기를 치른다.

올해보다 개막일은 일주일 늦어졌고 시범경기는 팀당 2경기씩 늘어났다. 올해 팀당 8경기씩 시범경기를 치렀고, 개막일은 3월 23일이었다.

KBO는 올해 포스트시즌이 끝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FA 김종규, LG와 협상 결렬

“3개 구단 사전 접촉 의혹”…KBL에 협상 보류 요청

프로농구 청원 LG에서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국가대표 센터 김종규(28)가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됐다.

한상우 LG 단장은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종규에게 연봉 9억 6000만원, 인센티브 2억 4000만원을 더해 첫해 보수 총액 12억원에 5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결렬됐다”고 전했다.

FA 시장 최대어로 꼽힌 김종규는 2018~2019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1.8점 7.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LG를 4강 플레이오프까지 견인한 팀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 2013년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위로 LG 유니폼을 입은 이후 줄곧 LG에서만 뛰었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타 구단 아직 가능성성이 커졌다.

하지만 LG 구단은 타 구단의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단장은 “다른 구단의 사전 접촉 의혹이 있어 현재 KBL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LG에 따르면 3개 구단이 김종규와 사전 접촉을 했다고 한다.

KBL이 LG 구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종규의 협상 상태가 보류로 변경된다.



KBL 관계자는 “현재 이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보류로 변경되면 타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없다. 조사가 끝난 후 재공시되는 형태”라고 했다.

민양 김종규가 KBL로부터 FA 자격을 인정받으면 다른 구단에서는 LG가 제시한 연봉 9억 6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LG는 또 다른 대어급 FA인 가드 김시래(30)와는 첫해 보수 총액 6억원에 5년 계약을 체결했다.



UCL 결승 앞둔 손흥민

“결승서 불타오를 것”

내달 2일 리버풀과 맞대결

유럽축구연맹(UFC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이 유력한 손흥민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14일(한국시간) 손흥민과 인터뷰를 재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리버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파이어 모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11월 중순부터 18경기에 나서 14골을 터뜨리며 맹활약을 펼친 것에 대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이 “불을 뿜고 있다”고 표현한 것도 소개했다.

이런 맹활약 덕에 시즌 종료 후 토트넘 구단 자체에서 주는 4개의 상을 모두 획득했다.

시즌권 구매자가 뽑은 올해의 선수상, 유소년 멤버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서포터 클럽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서포터들이 이 뽑은 올해의 골 등이다.

모두 토트넘의 오랜 팬들이 직접 뽑은 것들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손흥민은 “팬들이 주는 상을 받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잘해준 팀 동료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시즌을 마쳤지만 더욱 중요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남아 있다. 다음달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와타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리그리벌인 리버풀과 우승컵을 놓고 다투다.

손흥민의 각오는 충만하다. “팀원 모두가 휴식을 필요로 했

다”면서 “결승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한 몸상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뛰는 것은 최고의 기분일 것이다. 매 초, 매 플레이마다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면서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내가 불타오르길 바란다”고 웃었다.

손흥민은 팀 동료들보다 조금 더 오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본머스와 경기에서 퇴장당하며 12일 열린 38라운드 에버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비지만 경기에 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펐다”면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놀라운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토트넘은 리버풀과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두 번 모두 1-2로 패배했다. 그러나 그는 “승패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지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저 잘 준비하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리버풀은 매우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토트넘과 리버풀(이상 잉글랜드)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다음달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와타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다.

뉴스

박주영, K리그1 11라운드 MVP 선정

프리킥 한 방으로 대구FC를 울린 FC서울의 공격수 박주영이 하나원큐 K리그2 2019 11라운드 최고의 스타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박주영을 K리그2 11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11일 안방에서 열린 대구와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박주영은 1-1로 맞선 후반 38분 골문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절묘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황현수의 첫 골을 도운 선수

도 박주영이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박주영과 박용지(상주) 제리치(강원)가 이름을 올렸다. 김인성(울산), 김보경(울산), 완렐손(포항)이 미드필더로 낙점됐고 황현수(서울), 강민수(울산), 구자룡(수원), 김용환(포항)이 포백을 형성했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유상훈(서울)에게 돌아갔다.

K리그2 MVP는 아니에르(수원FC)가 차지했다.

뉴스

쉽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